



12월 3주차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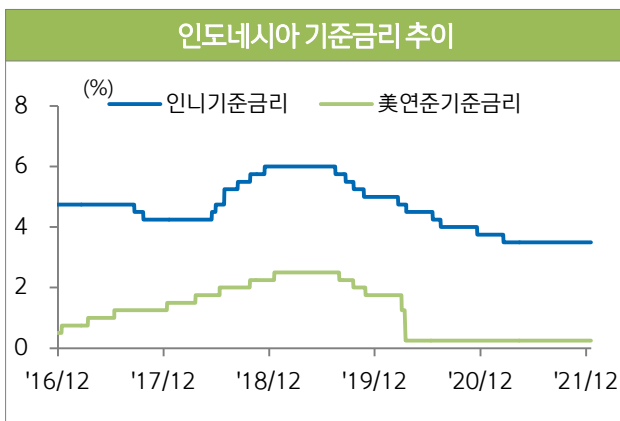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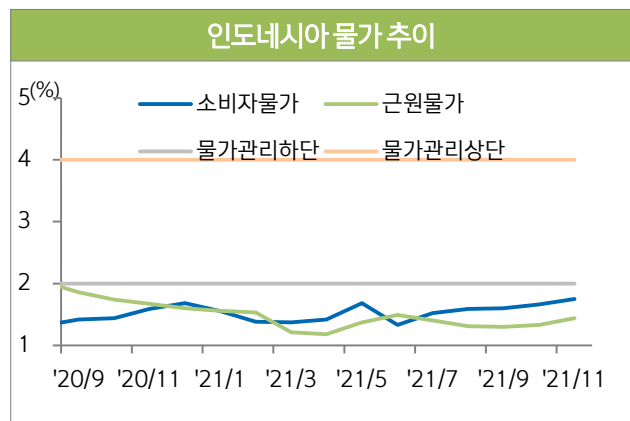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美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부담 속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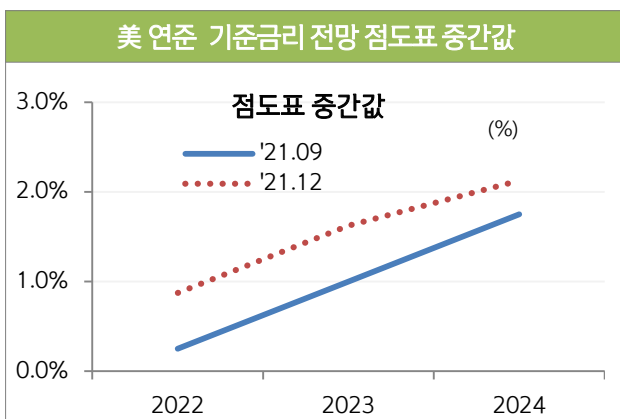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12/16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다시 한 번 동결하였음. 올해 2월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 **물가가 안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여 지원한다는 방향**
- ▶ 인도네시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75%로 전월의 1.66% 대비 상승하였고 근원소비자물가는 전월의 1.33%보다 상승한 1.44%를 기록. 소비자물가지수와 근원소비자물가지수가 물가 관리 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지만 근원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상승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 **제조업PMI와 소비자심리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거저효과에 힘입어 물가 상승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정부와 중앙은행의 관리범위를 넘어서진 않을 전망**
- ▶ 美 연준은 올해 마지막 FOMC에서 현재 진행중인 테이퍼링의 속도를 2배로 높여서 기존 6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양적완화 종료 시점을 3월 마무리 하는 것으로 발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양적완화가 종료된 시점에 바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양적완화 종료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인플레이션 제어로 방향을 틀었음을 확인함. 연준위원들의 점도표 전망에서도 2022년 중간값이 3회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전보다 빠른 긴축으로 진행됨에 따른 신흥국들의 자본 유출 부담도 증가할 전망.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반드시 인도네시아에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안정적 물가 및 환율 수준이 바탕이 된다면 완화적 정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긴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음. 2022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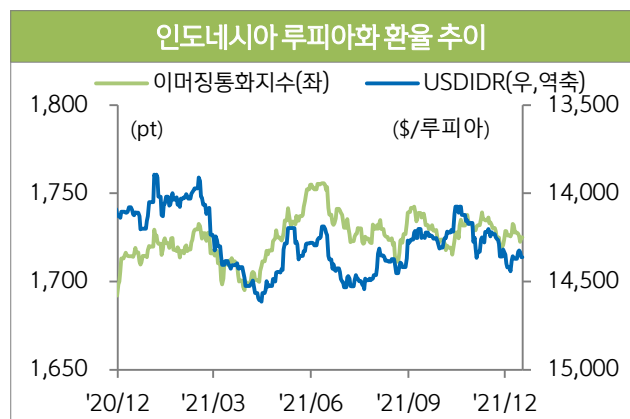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12.17	12.10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479.79	1,463.54	↑ 1.11	↑ 34.05	1,023.94 '21/01/28	1,500.81 '21/11/25
인니	자카르타종합	6,601.93	6,652.92	↓ -0.77	↑ 10.42	5,760.58 '21/05/19	6,723.39 '21/11/22
인도	SENSEX	57,011.74	58,786.67	↓ -3.02	↑ 19.39	45,553.96 '20/12/21	61,765.59 '21/10/18
중국	상해종합	3,632.36	3,666.35	↓ -0.93	↑ 4.59	3,356.78 '20/12/22	3,715.37 '21/09/13
	심천종합	2,523.15	2,546.65	↓ -0.92	↑ 8.32	2,160.91 '21/03/09	2,561.91 '21/12/13
홍콩	H	8,218.00	8,578.33	↓ -4.20	↓ -23.47	8,218.00 '21/12/17	12,228.63 '21/02/17
	항셱	23,192.63	23,995.72	↓ -3.35	↓ -14.83	23,192.63 '21/12/17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017.73	3,010.23	↑ 0.25	↑ 5.02	2,733.68 '20/12/22	3,305.21 '21/07/06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12.17	12.10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14	2.12	↑ 1.90	↓ -43.60	2.06 '21/09/15	2.65 '21/02/26
인도네시아	6.43	6.31	↑ 12.00	↑ 54.80	5.89 '20/12/30	6.80 '21/03/19
인도	6.41	6.37	↑ 4.10	↑ 54.60	5.82 '21/01/05	6.41 '21/12/17
중국	2.90	2.88	↑ 1.90	↓ -25.10	2.82 '21/08/06	3.30 '20/12/18
한국	2.15	2.20	↓ -4.30	↑ 43.00	1.64 '20/12/23	2.56 '21/10/29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12.17	12.10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937.00	23,024.00	↓ -0.38	↓ -0.70	22,645.00 '21/11/12	23,133.00 '20/12/24
달러-루피아 (IDR)	14,355.00	14,371.00	↓ -0.11	↑ 2.17	13,895.00 '21/01/04	14,615.00 '21/04/15
달러-루피 (INR)	76.09	75.78	↑ 0.40	↑ 4.13	72.33 '21/02/24	76.23 '21/12/15
달러-위안 (CNY)	6.38	6.37	↑ 0.08	↓ -2.33	6.34 '21/12/08	6.57 '21/03/30
달러-원 (KRW)	1,180.82	1,181.19	↓ -0.03	↑ 8.68	1,081.84 '21/01/04	1,198.85 '21/10/12

주요 뉴스





세계은행, 인도네시아의 2022년 성장 회복 가속화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세계 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2022년 성장률 전망을 5.2%로 전망하였음. 성장의 키는 코로나19 대응 체계의 강화를 통한 추가 확산이 없는 범위 하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양호한 교역 및 투자 확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경제가 2021년에 델타변이로 인해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긴 하였지만 성장을 지속한 결과 올해 성장률은 3.7% 수준이 될 것이고, 2022년에는 5.2%까지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발표하였음. 이러한 전망은 인도네시아가 2022년에 70%가 넘는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고, 다른 코로나19 변이의 확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망된 것임. 또한 대외 교역 요건도 무역이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현재의 상승된 가격에서 완만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도 반영하고 있음. 이번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자료는 '녹색 시대. '더 높은 성장과 더 낮은 탄소 경제로 ' 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음.
- 델타변이까지 겪으면서 인도네시아는 백신 접종 확대, 검체 및 추적 검사, 적절한 대응 캐파 확보 등 이후의 변이에 대한 대응 준비를 높여놓았다면서, 이러한 개선에 근거하여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하면 더 성장을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 요소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글로벌 금융 환경 그리고,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들로 인한 성장 잠재력 감소 등이 있음.
- 경제 모멘텀을 지속하고, 코로나로부터의 경제/사회적 상처들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및 주요 기관들이 투자를 증진하고, 인적 자원의 상향을 만들며,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적인 변화들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음. 원격 도서 지역 등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고 검사, 추적 및 치료를 가속화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 하에서도 여러 정책들을 조합하여 완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하였음.
-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늘려둔 재정적자를 중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임. 이를 위해서 낮은 징세율을 개선하기 위한 세금 관리 법안들의 도입을 요구하였음. 또한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쟁력 있고 안정적이며, 녹색 경제 중심의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함.

(뒷면 계속)

-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력 산업 부문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 부문으로 이 부문을 개선하면 인도네시아가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수준대비 2030년까지 26%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다면 2030년까지 41%의 탄소를 감축한 뒤에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임. 점진적으로 석탄 발전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서 저탄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인니정부, 팬데믹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대비한 준비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창궐로 인해 타격을 받고는 있지만 결국에서는 해소될 바이러스 상황에 대응하여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변화된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상품 및 서비스를 재정의하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음

-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19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 개혁을 동반한 불확실성 대응 조치를 높이기로 하였음. 해양 및 투자 조정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최소한 2가지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그린 개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전환이 큰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하였음.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인도네시아의 보건 산업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는 델타변이 이후에 보건 산업 관련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보건 시스템의 충분한 발전을 이끌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폭넓은 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기존에 니켈 원광석과 같은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것은 줄이고 관련된 하류 산업 부문을 발전시켜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련하고, 전기차 배터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계로 하여금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면서, 북부 칼리만탄의 Tanah Kuning 산업 단지의 건설 과정에서 주력 에너지원은 수력 발전소를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도 겸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투자 위원회(INA)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국부 펀드를 조성하였고, 이 국부펀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와 보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제약 산업 등에 대한 투자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음. 또한 인도네시아의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서 그 동안 항만 물류 및 항공 물류 측면이 부진하였던 것을 보완하며, 인터넷 인프라도 높여서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경제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각국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작업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창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미래를 향해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뒷면계속)

- ▶ 산업계는 팬데믹 기간 동안 변화된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기존의 제품들을 수정하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음.
- ▶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보험 사업과 관련해서 알리안츠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험 산업이 다시금 여행자 보험과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여행을 재개하면서 요구되는 상품들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욱 여행자 보험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료 조치 등이 늘어날 수 있으며, 새로 만들어내는 여행자 보험들은 기존에는 보장 범위에 없었던 질병을 보장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로 인해서 국경이 폐쇄되어 항공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 등 새롭게 나타난 위험을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상품 조정도 검토하고 있음. 알리안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 규모가 2027년에 337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음.
- ▶ 인도네시아 Bank Neo Commerce에서는 대출자들이 밀레니엄 세대에서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수요 변화에 맞춰서 예금 계좌를 온라인으로 만드는 등 금융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온라인 앱을 통해서 가능한 서비스를 늘리는 한편으로 시중 은행들에서는 취급하지 않던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교육 및 보건 서비스 등 기술적인 생태계와 연계해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도 개발해나가고 있음.
- ▶ Pertamina Power에서는 팬데믹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NRE)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Pertamina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19년 1% 수준에서 2030년에는 17% 수준으로 높이고, 가스의 사용 비중을 3%에서 19%로 늘리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음.



2022년 인도네시아 재정적자 대응용 973조 루피아 차입 계획



❖ 요약 및 시사점

2022년에도 적자 재정에 따른 차입이 이뤄질 예정이며, 차입으로 진행하거나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임.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2021년 잉여분을 활용하는 등 부채 관리에 힘쓸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도 868조 루피아 규모의 재정적자 예산 총당용으로 973.6조 루피아의 차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발표하였음. 국채(SBN) 발행 991.3조 루피아를 진행하거나 937.6조 루피아의 차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무부의 금융 전략 국장은 발표하였음. 973.6조 루피아 가운데 80~82% 가량은 루피아화로 진행하고 나머지 18~20%는 외화로 조달하는 계획임.
- 국채발행은 입찰 또는 비입찰 방식으로 발행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일반 국채(SUN)이 69~72%, 국가 샤리아 부채(SBSN)이 28~31%의 비중으로 계획됨.
- 내년 GDP대비 부채비율은 당초 예상한 43.1%보다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해당 목표는 2021년에 집행되지 않은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세법 변경 사항에 따른 징세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2045년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 지속 필요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9,300달러를 넘는 중위 소득 국가를 달성하고 선진 경제권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무장관은 강조하였음. 정부부문의 세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 계획이 핵심이 됨

- 재무장관은 2045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경제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 개혁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2045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현재의 2.57억 명에서 3.09억 명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중 52%가 생산 가능인구를 차지하며, 75%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아가며, 80%의 인구가 중산층 수준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29,300달러를 넘는 중위 소득 국가 달성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비전이 실행된다면 총 GDP 규모로 세계 4위의 경제권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음.
-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교육 개선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보건 및 사회보장 시스템의 강화와 함께 인도네시아가 황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국가 인프라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여기에 더해 신기술의 도입, 지방 개발의 촉진, 그리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기 위한 개혁적인 경제 계획하에서 국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최적화라는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제 개혁을 통해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 국가 지출의 효율화 및 자금 조달 기능의 질적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법안이 인도네시아 민간 투자 사업 부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투자 친화적인 경제가 되고, 창의혁신을 증진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음.



재무부, 향후에도 현재의 긍정적인 수출입 실적 지속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 이후로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부문이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데, 재무부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제조업 활동의 개선이 이러한 수출입 증가세를 이끌 전망

- 재무부에서는 지난 19개월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온 수출입 실적이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수출 실적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글로벌 수요의 지속으로 인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며, 국내 민간 부문 활동의 개선에 힘입어 수입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보았음
- 또한, 국제 포럼에서 인도네시아의 주요 원자재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무역에서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 협상을 통해 기회를 엿보고 있음.
- 인도네시아가 2021년 11월까지 지난 19개월 동안 누적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43.2억 달러로 11월 한달 동안만 35.1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는 등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올해 1~11월 사이에 2,091.6억 달러의 수출 가치를 기록하여서, 200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단순히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가격 및 수출 물량 확대 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생산하는 제조물품 및 광산 활동 부문의 수출 성과도 긍정적이었음.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소비재, 자본재의 전반적인 증가로 수입 실적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힘입어 수입 부문도 올해 연간 수입 규모는 2020년의 수입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21년 정부 재정적자를 5.4% 수준으로 줄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요약 및 시사점

2021년 인도네시아 재정은 세외 수입이 수출입 증가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글로벌 원자재 수요 증가와 전기차 확대에 따른 인도네시아 경쟁력 증가가 향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경제 조정장관은 2021년 재정 적자 규모가 당초 예정하였던 5.7%보다 낮은 5.4% 수준으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음. 세수는 모든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세외 수입 부문이 목표를 크게 초과하게 되면서, 재정 수입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이러한 긍정적인 재정 수입은 공공 지출을 더 확장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차량세 및 부동산세를 완화하여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음. 또한 제조업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제조업 PMI가 51pt를 기록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40개 국가 중 재정 적자 수준으로 12위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음. 인도네시아의 기초 경제 지표 역시 좋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경상수지 적자는 18위, 외환보유고는 20위, 물가상승률은 5위, 대외 부채는 21위, 취약성 지수는 15위 수준으로 양호한 경제 여건을 유지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美 연준이 스탠스를 변경하더라도 충분히 감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Pertamina,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 17% 목표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에너지 공기업인 Pertamina는 ESG 달성 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는 부패방지 및 좋은 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이사회/경영진 서약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구조를 약속하고 있음

- Pertamina는 2030년까지 장기 사업 계획(RJPP)에 의거하여 17%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목표를 잡았음. 이를 위해서 8개의 과제를 잡았는데 우선 첫번째로는 지열발전의 용량을 2020년 672MW에서 2026년 1,128MW로 늘리고, 수소 사용을 늘리면서 하루 8,600kg의 수소를 사용할 계획임.
- 다른 계획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기업에 조인트 벤처로 참여하고, 메탄올 가스화 공장을 건설하며, 친환경 정유설비를 건축하고, 친환경 에너지 용량을 늘리며, 탄소 순환 경제 구축 및 디메틸 에테르 등 바이오에탄올 기반의 신재생연료를 개발하고 발전소의 용량을 늘리는 등의 계획들이 검토됨. Pertamina는 또한 현재 의회가 준비중인 신재생 사용 가속 법안에 대응할 준비도 진행 중임
- Pertamina의 ESG 강화 차원에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범죄 및 부패 보고, 민원 사항의 법적 대응과 관련한 절차 정비 강화, 이력 추적 시스템을 통한 임직원 의무 이행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Pertamina는 좋은 기업 지배구조 점수를 2020년 92.85점보다 개선하여 모든 부문에서 100%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부패방지위원회, 인도네시아 경찰청, 검찰청 등과 협력하여 법적인 조치들을 통해 부패 없는 공공성을 달성하는데 협력하고 있음.
- 한편, 이사회 구성원들과 경영진들은 New Pertamina Clean Charter에 서명하면서 이해관계 상충을 피하고, 전문적으로 기업을 결정하며, 뇌물과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대응을, 신뢰와 통합을 통해 좋은 지배구조를 달성하기로 한다는 서약을 맺었음.